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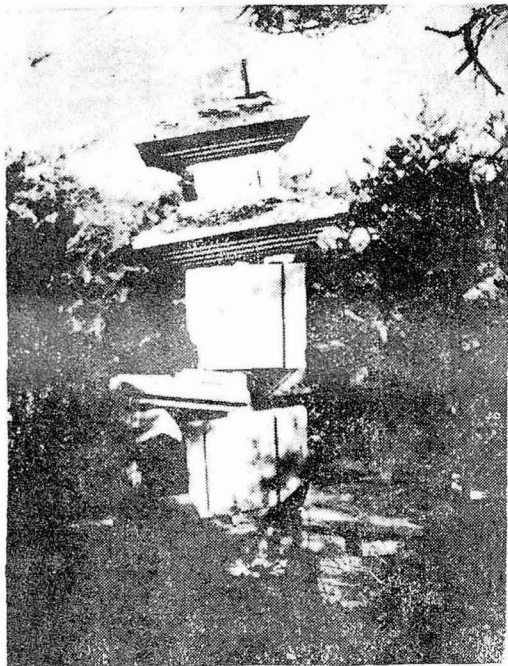
○나 人夫不注意로 破壞되었다. 그形式은 I의二와 비슷하다.

禪本庵三層石塔

(新羅五岳調查記其二)

秦 弘 燮

禪本庵은 冠峰(갓바위) 石造如來坐像(本誌第二卷 第三號 鄭永鎬)·「八公山頂의 石佛兩軀」(參照) 北麓에 있고 銀海寺 末寺로 되어있다. 이 庵宇西便에 나지막한 山峰이 있고 이 峰頭에 三層石塔 一基가 建立되었다. 新羅通式의 이 石塔은 二重基壇으로 下層基壇은 面石과 甲石을 各各 八石으로 構成하였고 撐柱는 二柱가 있고 甲石 上面에는 角弧의 물덩이 있다. 上層基壇은 面石 八枚 甲石 四枚로서 構成하고 面石에는 亦是 各面에 二柱씩의 撐柱가 있다. 甲石 上面에는 角形 二重 물덩이 있어 塔



第六卷 第二號 通卷五十五號

身을 받고 있다. 初層塔身은 上下로 二石을 겹쳤고 隅柱가 뚜렷하다. 二層、三層의 塔身은 適當히 減縮되었다.

屋蓋石받침은 各層 五段이며 추너는 直線을 이루어 新羅石塔의 定式을 보여주고 있다.

初層塔身 上面에 徑 二六cm、深 一七cm의 舍利孔이 있으나 舍利는 勿論 盜失되었다. 二層 屋蓋의 한쪽을 들고 그 틈에 나무토막과 돌을 고여 놓았는데 이것은 舍利를 盜取한 痕跡으로 보인다.

相輪部는 全失되었고 다만 밑에 轉落되어 있는 三層屋蓋石 上面에 徑 一〇·五cm 深 九cm의 圓孔이 있는데 擦柱孔으로 보인다. 總高 五m、下基壇 幅 三·三m의 堂堂한 塔이며 各部의 比例 또한 整頓되었고 더욱이 松林에 싸인 峰頭에 肅穆 솟아 雄壯한 形態를 보이고 있다. 初層塔身을 上下 二石으로 構成함은 麗代의 作인 光州 西五層石塔에서도 볼 수 있는 手法이지만 羅代의 作에 이러한 例는 本바 없애 이것이 石材求得이 어려웠던 理由인지는 몰라도 注目되는 바이다. 그 樣式 手法으로 보아 八世紀를 넘지 않을 秀作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注目되는 바는 建塔의 位置다. 前에 도言及한 바와 같이 刹 隣近의 山峰을 選擇하여 그 峰頭에 建立하였으니 그 近處에 이러한 巨塔에 알맞는 寺宇를 이룩할만한 자리도 없고 보면 寺宇를 經營하였다 하여도 極히 小規模의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現在 石塔 南쪽은 急傾斜를 이루는데 石塔에서 僅僅 約 二·五m의 距離를 두고 거의 同代로 보이는 石燈臺石이 있고 그 밑으로 屋蓋石이 轉落되어 있다. 이와 같은 位置를 選擇하여 建塔한 例는 華嚴寺 四獅三層石塔이 있어 塔前에는 亦是 石燈이 있고 그外에도 石窟庵 三層石塔이 그러하고 慶州 茸長寺址 三層石塔이 그러하다. 또 石塔은 아닐지라도 安東 開目寺 塔址(本誌 第五卷 第八號參照) 安東 場基洞 塔址(本誌 第五卷 第九號 參照) 등이 모두 그러하다. 此外에도 이러한 例를 볼 수 있으니 統一期 以後 敎理上의 變異도 있겠지만 建塔位置로 이러한 자리를 選擇한 理由는 注目되어야 할 問題라고 할 것이다.